

研究論文

<동동> ‘새서가만하애라’와 <한림별곡> ‘덩소년(鄭少年)’의 의미 재론

황 병 익*

I. 들어가기	IV. 나오기
II. <동동> ‘새서가만하애라’의 의미 재론	<참고문헌>
III. <한림별곡> ‘덩소년(鄭少年)’의 의미 재론	<국문요약>

I. 들어가기

고전시가에서 불분명한 구절을 찾아 확실한 풀이 근거를 마련함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실제로 그 일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아직도 어떻게 그러한 해석의 논리가 유효할까 의아해 하면서도 어형과 문맥에 맞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도 그 일의 어려움 때문일 것이다.¹⁾

김태준의 『조선가요집성』이나 양주동의 『여요전주』 이래로 많은 연구자들이 고려시대 가요의 구절구절들을 풀이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난해구들이 많다. 이에 본고는 <동동(動動)> 9월령의 ‘새서가만하애라,’ <한림별곡(翰林別曲)>의 ‘덩소년(鄭少年)’에 대한 새로운 풀이를 시도한다. ‘새서가만하애라’는 끊어 읽기에 대한 논쟁이 무성하다가 “문법사적 관점에서 이 시기의 언어에 주격 조사 ‘가’를 인정할 수 없다”²⁾는 주장에 따라 ‘새서’와 ‘가만하애라’로 끊어

* 경성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초빙외래교수, 고전시가 전공(hwangbi@ks.ac.kr).

1) 김완진, 『향가와 고려가요』(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189쪽 참조.

2) 위의 책, 242쪽.

한다는 당위론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서가V만하애라’를 취해 풀이하는 논자들이 많고, 어의(語義)와 9월령의 흐름에 맞는 설명을 찾아내지는 못한 형편이다. 한편 ‘덩소년’은 “외설스런 남자, 바람둥이 남자,³⁾ 미소년 혹은 왈짜패 등으로 풀이의 윤곽을 잡았지만 아직 실증을 바탕으로 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새서가만하애라,’ ‘덩소년’에 대한 선행들의 성과에다 새로운 문헌과 자료 실증을 덧붙여 <동동>, <한림별곡>의 앞뒤 문맥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새로운 풀이를 찾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문맥적으로 자연스럽고, 어학적 근거까지 분명한 대안을 마련하는 일은 애초부터 필자의 능력 밖일 수 있으나 문헌자료를 통한 실증, 어학적 해석, 문화적 접근만이 작품의 전체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있어 오차범위를 그나마 줄일 수 있는 일이라 여기어 이들 어휘에 대한 일단의 풀이를 시도하고자 한다.

II. <동동> ‘새서가만하애라’의 의미 재론

<동동> “새서가만하애라”의 의미 파악을 위한 노력은 초기 연구부터 꾸준히 지속되었다. 김태준은 “약이라고 먹는 국화꽃이 아직 산락(散落)하지 않았으니 세서가 만하애라,” “세서(歲序)가 만(晩)하게 되니라”⁴⁾로, 양주동은 “세서가 만하애라, 즉 금년도 저물었다,”⁵⁾ 지현영은 “새서 가만하애라, 즉 새로운 기운(뜻) 미미(微微)하도다(幽邃)하도다, 새로운 기운이 그윽하리로우나”⁶⁾로 풀이했다. 오래 전부터 ‘새서가V만하애라’와 ‘새서V가만하애라’의 끊어 읽기 논쟁이 지속된 셈이다.

‘새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끊어 읽기와 의미 해석에 큰 차이를 보이는데, 양주동은 ‘새서’를 ‘세세,’ 즉 세월의 차례(歲序)란 뜻의 한자어로 풀이하였고,

3) 呂增東, 「고려노래 연구에 있어서 잘못 들어선 점에 대하여」, 『白江徐首生博士還甲紀念論叢 韓國詩歌研究』(螢雪出版社, 1981), 11~13쪽; 조규익, 『高麗俗樂歌詞 景幾體歌 鮮初樂章』(한샘, 1993), 139쪽; 金善祺, 「翰林別曲의 解釋的 考察」, 『韓國言語文學』, 47(2001), 17쪽.

4) 金台俊, 『朝鮮歌謠集成 古歌篇 第1輯』(朝鮮語文學會, 1934), 36쪽.

5) 梁柱東, 『麗謠箋注』(乙酉文化社, 1947), 121~122쪽.

6) 池憲英, 『鄉歌麗謠新釋』(正音社, 1947), 84~87쪽.

남광우는 이를 '모연(茅椽), 모옥(茅屋), 모재(茅齋)'에 해당하는 고유어⁷⁾ 이응백은 "새어 나와"로 풀이하였다. '새서~'에 대한 기존의 풀이를 나열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 (1) 세서(歲序)가 만(晩)하애라(금년도 늦어가는구나).⁸⁾
- (2) 새서(茅屋) 가만하애라(조용하여라, 조용하구나, 초가집茅屋이 애로 哀寥하구나).⁹⁾
- (3) 새서(茅屋) 가만하애라(한적 閑寂하구나, 요적 寥寂하구나), 초가집이 한적(閑寂)하기만 하여라.¹⁰⁾
- (4) 새서(歲序) 가만(緩)하애라.¹¹⁾
- (5) ① "새 같은 서케조롱만 하여라," 곧 "새처럼 엮은 서케조롱 같도다"의 뜻이다.¹²⁾ ② 새서 가만하애라(새로서 감감하다, 아득하다, 막막하다).¹³⁾ ③ '새서'는 '새서다(사레들리다),' 즉 사레가 들리어 눈앞이 감감한 변을 당했다.¹⁴⁾
- (6) '새서'는 동사 '새다(漏)'의 어간에 어미 '셋(이서)'가 붙은 것이고, '가만하다'는 '미(微)·정(靜)·적(寂)·막(漠)·묵(默)·밀(密)·암(暗)·잠(潛),' 즉 '은근하구나'의 뜻이다.¹⁵⁾

(5)의 ①, ②, ③이 모두 한 연구자의 이론인 점은 '새서~'의 풀이가 그만큼 난제임을 말해준다. (5)①은 이 구절을 새(관형어)+서가(보어)+만하애라(술어)"의 결합으로 보고, 이 중 '새'는 부사 '새(新)'의 병용으로 계집아이들이 차는 조롱의 한 가지인 '서가'를 꾸민다고 했고, '만하애라'는 "감감하다, 아득하다, 막막하다"라는 뜻을 가진 감탄서술어라 했다. 그 결과 이 구절은 "굳이 황화(황국)의 고절을 운운

7) "초가집이 조용하구나. 임 없는 쓸쓸한茅屋이寥寂하구나"의 뜻이다. 南廣祐, 「古歌謠에 나타난 難解語에 對하여: 麗謠를 中心으로」, 『한글』, 126(1960); 南廣祐, 『國語學論文集』(一潮閣, 1975), 343~345쪽.

8) 金亨奎, 『古歌謠註釋』(一潮閣, 1965), 245쪽 참조.

9) 南廣祐, 앞의 책, 343~345쪽.

10) 朴炳采, 『高麗歌謠 語釋研究』(宣明文化社, 1968), 110~112쪽.

11) 全奎泰, 『韓國詩歌研究』(고려원, 1986), 283쪽.

12) 서재극, 「麗謠 註釋의 問題點 分析: 動動, 靑山別曲을 中心으로」, 『語文學』, 19(1968), 3~5쪽.

13) 徐在克, 「麗謠 解釋에 따른 몇 가지 問題」, 『國語國文學』, 64(1974), 613쪽.

14) 서재극, 「노래 <動動>에서 본 高麗語」, 『高麗時代의 言語와 文學』(螢雪出版社, 1975), 101~102쪽.

15) 李應百, 「動動 九月令 語釋考」, 『국어국문학』, 77(1978), 67~69쪽.

할 필요도 없이, 꽃을 보니 옛날 젊었을 때의 추억(自畫像)만이 되살아났고, 기다리는 임은 오실 날이 갈수록 막막하다는 소박한 신세타령"이라 하였다. 그러나 '새서'를 부사로 본 자신의 견해에 스스로 회의를 품게 되었다면서 다시 (5)②, (5)③의 주장으로 전환했다. (5)②는 결과적으로 다른 논자의 (2), (3)과 유사하지만 (5)③의 어원 풀이는 남다르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7) '황화'가 『동국세시기』 등에 보이는 '황화병(黃花餅)'일 경우는 모르거니와 이것이 '황화주(黃花酒)'라고 한다면 '새서'는 방언 '새알들리다'나 공통어 '사레들리다'의 경우처럼 동사 '새서다'의 활용일 수도 있다. 즉 '새+서(어)'는 '사레+들어'와 유사한 구성으로, "중구일에 황화주를 마시면 약이 된다고들 하니 먹기는 먹었으되,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여인인 처지라, 먹은 것이 사레가 들어 잡자기 기침을 하고 한참동안 눈앞이 캄캄해지며 아찔한 변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법도 하다.¹⁶⁾

'새+서(어)'를 '사레+들어'와 유사한 구성으로 보고,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한 여인이 9월 9일에 남들을 따라 국화주를 약주삼아 마셨다가 사레가 들어 아찔한 변을 당했다는 (5)③의 주장은 '새서~'의 어원을 밝히려는 노력 때문에 논리적 비약이 생긴 듯하다.

'새서'에 대한 풀이를 살펴보면, '새서'와 '세서(歲序)'를 같은 단어로 보아 "세월의 차례, 곧 절후가 많이 지나갔구나"로 보는 견해¹⁷⁾와 '새서'를 '모옥(茅屋)'의 고유어¹⁸⁾로 보거나 "동사 '새다(漏)'의 어간 '새'에 어미 '서'가 결합한 형태"¹⁹⁾로

16) 서재극, 앞의 논문(1975), 101~102쪽.

17) 李鉉洙, 「高麗歌謠 '動動歌' 研究 民俗學的 考察을 中心으로」, 『東岳語文論集』, 8(1972), 159쪽; 崔元基, 「高麗歌詞 動動 '새서가만하애라'에 對한 語釋考」, 『研究論文集』, 21(釜山工業專門大學, 1980), 26~28쪽.

18) 유동석, 「고려가요 해독을 위한 이론적 전제」, 『語文教育論集』, 17(釜山大學校 國語教育科, 2000), 13쪽.

19) "(술 향기가) 새 나와서 은근히 풍기는구나"라는 이응백의 풀이가 최선이라 생각한다. '漏(물설루; '漉 물설 설, "대동강 너른디 몰라셔(서경별곡)," "괴리도 업시 마저서 우니로라(청산별곡)," "사스미 값대에 올라서(청산별곡)" 등 고려가요에서 흔히 보이는 문법 구성이며, '가만하애라'의 '가만' 역시 "무른흔 바라미(微颯)"(杜初 3:86), "높고 가미흔 寂"(두초 18:21) 등에서 보이듯, 보다 정확히는 '아득하다' 정도겠지만, '은은하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최철·박재민, 『석주 고

입는 독법이 주를 이룬다. 아예 “새서가 명사이든 동사의 부사형이든, 혹은 부사이든 간에 그윽하고 쓸쓸한 분위기라고 추정하는 것이 가능할 뿐 명확한 어석에는 필자의 능력이 미치지 못함을 유감으로 생각한다”²⁰⁾면서 ‘새서’의 어원 검증은 접어둔 채 9월령의 전체적 분위기만 형상화하고, “국화주 향기가 온 집안에 은은히 스며드는 것을 묘사했다”고 결론짓기도 한다. ‘새서’가 9월령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어원 설명 없이 ‘새서가만하애라’의 행간만을 분석한 논자들의 결론도 위와 별반 다르지는 않다.

(8) 노래의 뜻을 보면, “9월 9일이 되어 국화가 집안에 들어오니 금년 계절도 늦었구나”인데, 이렇게 해석은 되어도, “초가가 조용하다”는 9월 9일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기 어렵다. 그래서 더 좋은 해석의 방도가 발견될 때까지 약간의 무리는 있어도 전자에 따르고자 한다. 이 구절은 “새서가 만하애라,” 즉 “9월 9일에 약이라고 먹는 국화가 집안에 들어왔으니 금년도 늦어가는구나,” 이는 늦가을 세월 감이 빠름을 탄한 것이다.²¹⁾

(9) 황국을 따서 남을 위해 술을 담근다. ‘고지’란 ‘누룩이나 메주 등을 단단하게 다져 만들 때 쓰는 나무틀’이다. 그러므로 <동동> 9월령은 “9월 9일에 약이라고 하여 먹는 국화로 국화주를 빚어 넣으니 술 향기가 새 나와 은근히 풍기는구나.”²²⁾

(8)은 ‘새서’를 ‘세서(歲序)’와 동일시하여 내린 결론이다. (8)은 “문맥상의 호응으로 볼 때, ‘금년도 저물었다’ 또는 ‘늦어간다’로 풀이하는 것이 더 순조로우므로, 굳이 생경하고 어색한 주석을 달 필요가 없을 것 같다.”²³⁾ “국화꽃이 지고 나면 서리가 내리고 추워지기 시작하니 이미 세서도 저물어 가기 시작한다. 봄의 화사한 꽃에서 약동하는 젊음을 느꼈다면 9월이 되어 국화꽃을 보고 국화주를 마시면 이제 한 해도 저물어 간다는 느낌이다. 세서를 잡아맨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다.”²⁴⁾

러가요』(이회, 2003), 88쪽.

20) 최미정, 『고려속요의 전승연구』(계명대학교출판부, 1999), 218-219쪽.

21) 金亨奎, 앞의 책(1965), 245쪽.

22) 李應百, 앞의 논문(1978), 70쪽.

23) 林基中, 『高麗歌謠 動動效』, 국어국문학회(편), 『高麗歌謠研究』(백문사, 1979), 389쪽.

24) 任東權, 「<動動>의 해석」, 『高麗時代의 가요문학』(새문社, 1982), 1-52-53쪽.

“세월이 흘러 9월 9일이 되어 여인이 국화주를 마시니 이제 한 해도 저물어 간다.”²⁵⁾ “‘새서’는 세서(歲序)이고 ‘만하애라’는 안정(安靜)을 말하므로 9월이 가면 초목은 조락(凋落)하고 벌레들마저 동면하는 계절이니 무엇을 바라랴.”²⁶⁾ “세서를 ‘새서’라 한 것은 서민 대중의 구비전승(口碑傳誦)에 원인이 있고, 그 뜻은 ‘세월의 차례, 곧 절후가 많이 지나갔구나!’”²⁷⁾ 등 여러 논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다. (8)에 동조하는 논자들은 9월령을 대체로 국화주를 마시는 ‘가을’이 주는 계절감, 고독과 비애, 체념의식을 묘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9)는 ‘새서’를 새다(漏)의 ‘새+서’로 본 시각에 따른 것인데, 이는 ‘새서’를 “모연(茅椽), 모옥(茅屋), 모재(茅齋)의 뜻으로, 초가집이 한적하기만 하여라”로 풀이하고, “9월 9일에 아아 약이라고 먹는 국화꽃이 집안에 드니 초가집이 한적하구나. 아오 동동다리”로 읽는 논자들과 논점이 흡사하다. 국화가 주는 계절감이 여인의 고독을 더욱 부추겼을²⁸⁾테고, “여인의 마음은 일일여삼추이므로 세월의 흐름에 가장 민감했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저물었는지 어찌지를 모른다’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고, ‘초가집이 쓸쓸하구나’로 풀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의 부재로 인해 여인의 감각은 한층 예민할 수밖에 없으니 스스로가 초라한 집의 외로운 존재임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²⁹⁾이다.

(8), (9)는 ‘새서~’를 서로 다르게 풀이하고 있는데도 9월령 전체의 분위기 묘사가 흡사한 것은 아주 공교로운 일이다. (8)처럼 늦가을의 정취를 묘사했다고 해도, (9)처럼 혼자 사는 여인의 쓸쓸한 집을 형상화했다고 해도 모두 처연(淒然)하고 고즈넉한 정서에 근거하여 해석했기 때문에 그 귀결점이 같아졌을 것이다.

한편 ‘새서’를 ‘세서’로 잡을 때 ‘세(歲)’의 고음이 ‘새’일 수는 없으며, 주격조사 ‘가’가 특히 운문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시기요, <동동>에서 ‘개(開)흔’으로 표기한 경우를 보면 ‘만하애라’도 ‘만(晩)하애라’로 표기하는 것이 순리³⁰⁾라는 점을

25) 尹敬洙, 「高麗歌謠 ‘動動’歌의 新研究 抒情의 情緒·受容樣相을 中心으로」, 『外大論叢』, 11(釜山外國語大學校, 1993), 243-244쪽; 尹敬洙, 『鄉歌 麗謠의 現代性 研究』(集文堂, 1993), 520-521쪽.

26) 李鉉洙, 앞의 논문(1972), 159쪽.

27) 崔元基, 앞의 논문(1980), 26-28쪽.

28) 兪경환, 「동동의 원형적 상징성」, 『새국어교육』, 65(한국국어교육학회, 2003), 336-337쪽.

29) 이성주, 『중보 고려시대의 가요』(민속원, 1998), 180-181쪽.

30) 李應百, 앞의 논문(1978), 67쪽.

들면서 '새서가만하애라'를 '새서가V만하애라'로 보는 시각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졌다. 문법사적 관점에서 이 시기의 언어에서 주격조사로서의 '가'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서경별곡>의 '네가시럽난디몰라셔'도 '네가V시럽난디V몰라셔'로 끊을 수 없고 '네V가시V럽난디V몰라셔'로 끊어야 한다는 논거를 제시하면서³¹⁾ '새서가만하애라'의 끊어 읽기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할 수 있다.

여기서 <동동>의 "(가) 9월(九月) 9일에(九日에) 약(藥)이라 먹는 황화(黃花) (나) 고지 안해 드니 (다) 새서 가만하애라"³²⁾를 몇 어절로 나누어 외연적·내포적 의미를 다시 분석해 보자.

(가)에서는 9월 9일에 노란 국화를 약 삼아 먹는다고 했다. 다음 자료들이 이 구절의 내포적 의미를 짐작하게 해 준다.

(10) 9일에 높은 곳을 외로이 올라

용산의 승지(勝地)에다 호사스런 자리 폈네.

술 마시다 흠뻑 취해 부축 받아 집에 올 쟈,
머리 가득 황화(黃花) 꽃고 달 보며 돌아오네.³³⁾

(11) 도성에 병란(兵亂)이 일어나

삼대 배듯 사람을 죽이는구나.

좋은 시절 차마 잊을 수 없어

막걸리에 국화 띄워 마시네.³⁴⁾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음력 9월 9일(重陽節, 重九日)이 되면 높은 곳에 올라 시와 국화주를 즐겼다.³⁵⁾ 신라 때부터 이날에 안압지 임해전(臨海殿)이나 월상루

31) 金完鎭, 『高麗歌謠의 語義 分析』, 『高麗時代의 가요문학』(새문社, 1982), III-3쪽.
32) <동동>의 가사원문은 성종조에 편찬한 『樂學軌範』 卷5; 『樂章歌詞 樂學軌範 時用鄉樂譜』(大提閣, 1988), 215쪽의 표기에 따른다.
33) “九日登高不待媒 龍山勝處錦筵開 也應酬醉扶歸路 滿插黃花踏月來 自註張詩有九登高之” 權冠, 次韻答張判官躋, 『陽村集』 卷3; 『韓國文集叢刊』 7(이하 『文叢』), 32쪽.
34) “釐下風塵起 殺人如亂麻 良辰不可負 白酒泛黃花” 李齊賢, 金尙書莘尹毅廟庚寅 重九日有詩云, 『樸翁稗說』 後集2; 민족문화추진회(편), 『국역 익재집』 2, 술, 149쪽 참조.
35) “宴時立帳高處 飲菊花酒·(中略)·解放前 東北漢族文人中比較重視重陽節 或野游或登高賦詩者 如吉林文風鼎盛 詩人會萃之地 常有菊花會 食菊花糕等重陽活動 民間對此節較爲淡泊” 張志立·汪玟玲, 九九話重陽, 『中國民俗大系研究叢書之一』 『中國民俗文化大觀』(上)(吉林人民出版社, 1999, 90쪽.

(月上樓)에서 군신이 모여 시가를 즐겼다 하니 우리나라 중앙절의 연원도 꽤 오래다. 이날이 되면 으레 상락주(桑落酒, 重陽酒)를 걸러³⁶⁾ 국화의 은은한 향을 즐기며 고아한 흥취로 삼았다.³⁷⁾ “달이 뜰 때까지 국화 술을 마시다가 흠뻑 취해서 머리 가득 황화를 꽃고 돌아온다”는 위의 (10)은 9월 9일의 정경을 잘 담고 있다. 이날의 광경은 여러 문인들의 글에도 나타난다.³⁸⁾ (11)은 상서(尙書) 김신윤(金莘尹)이 의종(毅宗) 무인년(1170), 즉 정중부가 난을 일으킨 때에도 좋은 시절의 중앙절 풍속을 잊지 못하고 국화주를 마시는 모습을 그려냈다.

국화는 정월에는 뿌리를 캐고, 3월에는 잎을 채취하고, 5월에는 줄기를 꺾고, 9월엔 꽃을 따고, 시월엔 열매를 훑어, 그늘에다 말린 후 약으로 쓴다.³⁹⁾ 국화는 “가슴 속의 답답하고 괴로운 번열(煩熱)을 없애주고, 속을 편안하게 하고, 맥을 순조롭게 하며, 팔다리의 혈액순환을 도와준다” 하였고, 오래 복용하면 “혈기가 원활해지고, 몸이 가뿐해지며, 노화를 방지해 수명을 연장시켜 준다”⁴⁰⁾고 여겼다. 9월 9일에 국화주를 약 삼아 마신 것은 이 때문이다. “9월 9일에 쉬나무 열매(茱萸)를 꽃고(두르고) 국화주를 마시면 장수한다”⁴¹⁾는 기록이나 “지금 사람들이 국화와 수유를 술에 띄워 마시기 때문에 수유를 대개 ‘벽사옹(關邪翁)’이라 하고 국화를 ‘연수객(延壽客)’”⁴²⁾이라 한 것을 보면, 국화주를 마시면 나쁜 액이 사라지고 장수

36) “終南青鶴洞 勝處是君家 預把重陽酒 相逢泛菊花” 李衍, 寄淳夫 三首, 『容齋集』 卷4; 『文叢』 20, 408쪽.
37) “處處瓊枝帶露斜 異邦誰與賞年花 霜姿不著蠻兒眼 風節偏宜漢使槎 乘興會傾三百盞 多情更聽一聲笳 故園無數黃金盞 白酒何人泛我花” 金誠一, 同五山 次老杜秋興八首, 『鶴峯續集』 卷1; 『文叢』 48, 180쪽; “尊酒相逢醉幾場 菊花侵坐生香 紛紛離合何煩說 一舉須傾果十觴” 沈義, 約與敬之等訪子溫 次韻, 『大觀齋亂稿』 卷3; 『文叢』 19, 181쪽.
38) “與客携壺杜紫微 風流文采須當時 誰知收隱登高處 只有黃花一兩枝” 李穡, 重九, 『牧隱藁』 卷6; 『文叢』 4, 21쪽.
39) “菊花 正月採根 三月採葉 五月採莖 九月採花 十月採實 皆陰乾.” 『鄉藥集成方』 卷78, 本草部上, 上品之上; 『韓國科學技術史資料大系 醫學學篇』 7(醫工出版社, 1988), 291쪽.
40) “除胸中煩熱 安腸胃 利五脈 調四肢 久服 利血氣 輕身 耐老 延年 一名節華 一名日精 一名女節 一名女華 一名女莖 一名更生 一名周盈 一名傳延年.” 『鄉藥集成方』, 위의 책, 같은 쪽.
41) “九月初九日 士農工商各行各業的人都到郊外登高 設宴飲酒·(中略)·佩帶茱萸 吃糕餅 喝菊花酒 据说這樣可以使人長壽·(中略)·到山上去喝菊花酒 这桩灾禍就可以免除.” 鶴齋(著) 譚麟(譯注), 野遊登高 佩萸飲菊, 『荆楚歲時記譯註』(湖北人民出版社, 1985), 122~124쪽.
42) “宋 吳自牧 夢梁錄 九月 今世人以菊花 茱萸 浮於酒飲之 蓋茱萸名辟邪翁 菊花爲 延壽客 故假此兩物服之 以消陽九之厄.” 羅竹風(編), 『漢語大詞典』 2(漢語大詞典出版社, 1988), 903쪽.

한다고 생각했음에 틀림없다. 수유와 국화주가 “나쁜 기운과 추위를 막고,43) 돌림 병(전염병)의 침투를 방지하고,44) 두통을 없애고, 눈을 밝게 하며, 바람으로 인한 열과 부스럼을 없앤다”45)는 기록도 있다.

(12) 거처를 새로 옮겨 국화 심을 틈도 없었네.
더욱이 중양절(重陽節)을 병중에 보냈으니,
언제나 처마 앞에 국화의 새싹 튀워,
향기 즐겨 잘게 씹으며 해묵은 병 고쳐볼까.46)

(13) 또다시 마시고 국화 씹으며,
속됨을 못 면하고 그러저럭 살 뿐이라.
아내가 웃으며 권한 술이 족히 기쁘거늘,
굳이 산에 올라 마실 필요 있으랴.47)

(12)에서는 국화주의 향을 즐기고, 국화를 잘게 씹어 해묵은 병을 고치겠다고 하였다. (13)에서도 아내가 권한 국화주를 마시며 그 안에 든 국화를 씹는 소박한 즐거움을 묘사했으니 <동동>의 “(가) 9월 9일에 약이라 먹는 황화”는 국화를 넣어 거른 술을 마신다는 의미와 함께 술 속에 담긴 국화(黃菊, 霜藥)까지 약으로 여기어 잘게 씹어 삼킨다는(嚼, 細嚼) 뜻을 담고 있다.

이화(梨花)를 ‘빛꽃’이라 하고, “씨…고지 프며 고지 듀매 니르니(以至…花開花

43) “九月九日律中无射而數九 俗于此日以茱萸氣烈成熟 尚此日折茱萸房以挿頭 言辟惡氣而禦初寒” 宋李昉等奉勅撰, 『太平御覽』 卷32, 時序部 17(中文出版社, 1980), 153쪽.

44) “桓景回到家鄉 召集鄉親 把大仙的話給大伙兒說了 九月九那天 他領着妻子儿女 鄉親父老登上了附近的一座山 把茱萸叶子每人分了一片 說隨身帶上 瘟魔不敢近身 又把菊花酒倒出 每人呷了一口 說喝了菊花酒 不染瘟疫之疾 他把鄉親們安排好 就帶着他的降妖青龍劍回到家中 獨坐屋內 單等降妖不一時 只听汝河怒吼 怪風旋起 瘟魔出水走上岸來 穿過村庄 走千家串百戶不見一人 忽然抬頭見人們都在高山上歡聚 它竄到山下 只黨得酒氣刺鼻 茱萸異香沁腑 不敢近前登山。” 雪梨(主編), 『中華民俗源流集成: 節日歲時卷』(甘肅人民出版社, 1994), 584쪽.

45) “菊花 頭日風熱腫痛同膏 芍藥未服” 李時珍, 『本草綱目』 卷4上, 百病主治藥 下; 『中國醫學大系』 40(驪江出版社, 1986), 480쪽, 772쪽.

46) “新居未暇種黃花 況是重陽病裡過 安得軒前金蕊嫩 吹香細嚼瘳沈痾” 李集, 乞菊一絕呈葵軒, 『遁村雜詠』 七言絕句; 『文叢』 3, 346쪽.

47) “亦復起飲嚼霜藥 未能免俗聊爾耳 山妻笑勸良足歡 何必登高爛漫醉” 李奎報, 重九日既以手病未出游, 『東國李相國集』 卷7, 古律詩.

落하)”(『금강반야바라밀경삼가해』 2:6)를 보면 ‘꽃’을 ‘꽃’이라 했고,48) “누룩이나 메주 따위를 디디어 만들 때 쓰는 나무틀”도 ‘고지’49)라 했으니 <동동> (나)의 ‘고지’는 앞의 ‘꽃+ㅣ’일 수도 있고, 뒤의 경우처럼 술을 거를 때 쓰는 나무틀일 가능성도 있다. 전자라면 “황화(黃花) 꽃이 안에 들었으니”이고, 후자라면 “술 거르는 틀 속에 황화가 들었으니”가 될 터이다. 그러나 “깊은 산 가을비 싸늘하게 느껴질 제, 울타리 지는 낙엽에 석양이 가려지네./누군가 사람 보내 국화주 전해주니./노란 국화 동동 떠 술 향기 진하구나.”50) “이집 저집 새로 담은 술 향기, 오랜 친구 마주 앉아 술잔을 부딪치네”라는51) 서술을 참고한다면, <동동> 9월령의 (나)는 나무틀에다 술을 거르는 장면 묘사라기보다는 “국화가 동동 뜬 술잔(술통)52)”을 보고 느낀 시적 흥취를 담았다고 보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문제는 <동동> 9월령의 시적 흐름에 맞는 ‘새서’의 어원을 밝히는 일이다. 『시경(詩經)』의 “백성들이 덕망 잃음은 먹을 것 없어서라네. 술 있으면 걸러두고 술 없으면 사다 놓고, 기쁘게 북을 치며 덩실덩실 춤을 추세. 그러다 한가해지면 거른 술이나 마셔보세”의 쓰임,53) 섬산(劔山)의 차(茗)와 함께 호북(湖北)의 의성주(宜城酒)를 소개하면서 ‘의성 서(醕)’54)라 하고, “거나하게 술을 마시고 즐기다,” “주흥이 도도하다,” “향기가 좋은 술,” “맑은 술,” “좋은 술”을 각각 ‘감서(酣醕), 환서(歡醕), 난서(蘭醕), 청서(淸醕), 미서(美醕)’라55) 한 것을 보면, ‘서(醕, 漚)’와 ‘주(酒)’를 통용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집운(集韻)』, 『광운(廣韻)』을 살펴보면, 서주(醕酒, 漚酒)는 “술 찌개미를 걸러낸 맑은 술, 즉 청주(淸酒)”의 뜻으로56) 좀 더

48) “넛 대에 새 竹筍이 나며 새 고지 넛 가지에 기도다(舊竹에 生新筍하며 新花 | 長舊枝호도다.” 『금강반야바라밀경삼가해』 3:23.

49) 李應百, 앞의 논문(1978), 70쪽 참조.

50) “窮秋山雨捲滄浪 落葉寒籬掩夕陽 何處白衣人送酒 黃花來泛一盃香.” 成渾, 村人送酒粟谷, 『牛溪集』 卷1; 『文叢』 43, 10쪽.

51) “況有萬戶新醕香 古洞相對學淸觴 文淵遺迹徒悲涼 安得石枕與藤牀” 『四庫全書』 史部, 地理類, 山水之風, 『桂勝』 卷1.

52) 范成大的 “醕香新麴嫩 茗味小春輕”(『閨門初泛二十四韻), 陶潛의 “罇湛新醕 園列初榮”(〈停云詩〉序)에도 술잔이나 새로 거른 술통에서 느끼는 흥취를 담고 있다.

53) “民之失德 乾餱以愆 有酒湑我 無酒醕我 坎坎鼓我 蹲蹲舞我 迨我暇矣 飲此湑矣.” 『詩經』 小雅 伐木

54) “聊時劔山茗 以代宜城醕(唐皎然 <送李丞使宣州>).” 『漢語大詞典』 9下, 1436쪽.

55) “芳塵凝瑤席 淸醕滿金樽.” 『文選』 謝靈運 <石門新宮所住四面高山回溪石瀨俯竹茂林詩>; “飲此醕矣” 李善注 『毛詩』.

구체화 된다. 상등의 술(首酒/頭酒)을 ‘서(醞)’라 하고, 하등의 술(尾酒)을 ‘리(醞)’라 칭했으니⁵⁷⁾ 서주는 “잘 빚어진 맑은(좋은) 술”로, “뭍고 싱거운 술”을 뜻하는 이주(醞酒), 박리(薄醞)와 구별하는 지칭이다.

“언덕에 회오리 불어 오동나무 늘어지고, /듬성듬성 수풀엔 이슬 맺힌 대추 열매, /새로 거른 술 한 잔에 수심은 풀렸지만(味廻新醞愁眉破), /얇은 옷 스미는 추위에 몸의 병을 알겠노라”에⁵⁸⁾ ‘서(醞)’와 ‘신(新)’의 결합인 ‘신서(新醞)’가 있는데, <동동>의 ‘새서’는 “새로 빚은 맑은(좋은) 술”을 뜻하는 이 ‘신서(新醞·新漚·新醞)’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신서는 결국 “이웃에서 제육(祭肉)을 보내오니 기뻐하며 새로 거른 술을 마신다”⁵⁹⁾ 등의 신양(新釀), 신배(新醞), 신온(新醞), 신국(新麴), 신료(新醞)와⁶⁰⁾ 같은 뜻이다. 다만 정성스레 올리는 귀한 술임을 강조하기 위해 “새롭게 빚은(新釀)”이란 뜻을 담은 ‘새’와 “잘 빚은 좋은 술(漚酒)”이라는 의미의 ‘서(醞, 漚)’를 결합하여 의미를 보다 구체화 하려 했다.

- (14) 용무(龍武)사 새 군(軍)에 기피 주연(駐輦)하야 겨시니 부용사 각별(各別) 혼 전(殿)에 속절업시 향을 휘우눗다(龍武新軍深駐輦 芙蓉別殿嚴焚香)[『초간본 두시언해』(이하 『杜초』) 11:21a]
- (15) 수를 취(醉)하야서 새 윤(尹)을 자랑하오디 뵈는 누네 이러니 이쇼물 보디 몬 하엿노라 하느다(酒酣誇新尹 畜眼未見有)(『杜초』 15:42a)
- (16) 석일(昔日)에 태종(太宗)사 터더신 권모왜(拳毛騮)와 근시(近時)에 곽자의(郭子儀) 지빛 사자화(師子花) | 이젿 새 도(圖)에 두무리 잇느니 또 아던 사랴모로 히어 오래 슬케 하느다(昔日太宗拳毛騮 近時郭家師子花 今之新圖有二馬 復令識者久嘆嗟)(『杜초』 16:39a)

56) “馬瑞辰通釋 漚爲首酒 必後之漚之 去其渣。”『漢語大詞典』5下, 1528쪽, “醞 醞酒也。”“漚 首酒也。”“醞 醞酒, 醞酒之美也 本亦作漢詩云 醞酒有莫”『集韻』上聲5; 『廣韻』卷3, 上聲; 『字典彙編』29(國際文化出版公司, 1996), 61, 230쪽.

57) “俗呼醞爲尾酒 醞爲頭酒”(〈庚信燈賦〉). 『康熙字典』(中華書局出版, 1958), 1285쪽.

58) “遠岸綠纒梧穢穢 疎林紅露索離離 味廻新醞愁眉破 涼入單絨病骨知.” 『四庫全書』集部, 別集類, 南宋建炎至德祐, 『丹陽集』卷20.

59) “東隣脯肉至 一笑舉新醞(陸游, 捨北搖落景物殊佳偶作 5).” 『漢語大詞典』6(下)(漢語大詞典出版社, 2001), 1078쪽.

60) “綠纒新醞酒 紅泥小火爐 晚來天欲雪 能飲一杯無.” 白居易 『問劉十九』詩, “良友貽新醞 春風酌舊京.” 杜岑 <元旦> 詩.

‘새+서/서(醞, 漚)’처럼 우리말 ‘새’에 한자말이 결합한 예로 “새로 보충(편성)한 군사(新投充의兵)”를⁶¹⁾ 뜻하는 신군(新軍), “새로 받은 벼슬”을 뜻하는 신윤(新尹), “새로 그린 그림”을 뜻하는 신도(新圖) 등이 있다. “새 정자(亭子) 지수물 막치니 물근 그릇 그늘해 그르메 隱見하엿도다(新亭結構罷 隱見淸湖陰)”(『杜초』 14:34b)가 있다. 여기에 ‘새 순(荀, 新荀),’ ‘새 순(筍, 新筍),’ ‘새 판(版, 新版),’ ‘새 서방(書房, 新郞),’ 요즘의 ‘새 차(車, 新車)’ 등이 더 있는데, “넷 대에 새 죽순(竹筍)이 나며 새 고지 넷 가지에 기도다(舊竹에 生新筍하며 新花 | 長舊枝하도다,” 『금강반야바라밀경삼가해』 3:23)에 “새로 난 죽순”을 뜻하는 ‘신순(新筍)’의 용례가 보인다. 이상의 ‘신(新)+군(軍)/윤(尹)/도(圖)/순(筍·荀)/판(版)’에서 ‘신(新)’은 “새로 보충한/새로 그린/새로 받은/새로 난/새로 짠”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수식적 의미를 내포하고, 뒤에 결합된 1음절 단어들의 독립성도 저마다 차이가 있다.⁶²⁾ ‘신서(新醞)’의 ‘신’은 “새롭게 빚은(新釀)”의 뜻을 내포하고, ‘서’는 위의 (15), (16)의 경우처럼 단어의 독립성이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자말 ‘서’를 ‘서’로 표기한 예는 “서불(서울), 서안(書案), 석죽화(石竹花), 서편(西便), 서리(書吏, 胥吏), 서얼(庶孽), 서직(書齋)” 등⁶³⁾ 여럿이 있으니 ‘새서’와 ‘새서’의 표기 차이는 문제될 바 아니다.⁶⁴⁾

‘가만하애라’의 기본형 ‘가만(마든)하다’의 뜻은 다음 자료들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제 좌(座)를 논호아 안치면”(『석보상절』(이하 석) 19:6)을 “이식자는 서품(序品)이니 품(品)은 난호아 제여곰 멀씨라”(『석』 13:37)이라 하고, “청의(靑衣)는 파란 옷 니븐 각시내라”(『월인석보』 2:43)“물 그식 내알는 굿 우미 파라하도다(漚

61) 朴在淵, 『中朝大辭典』7(鮮文大學校 中韓翻譯文獻研究所, 2002), 470쪽.

62) 이 외에도 “새로 놓은 다리(新橋),” “새로 지은 집(新居),” “첫눈(新雪, 初降的雪),” “눈비가 온 후에 처음으로 맑음(新霽),” “새 봄에 우는 앵무새(新鶯)” 등 다양한 예들이 있다.

63) “더 서안 우희 各樣書冊을 싸기를 乾淨히 하라(那書案上的 堆의 乾淨着.)” 『박통사언해』 중45; “서편으로 사슬 마초라 가라(西邊對壽去).” 『번역 박통사』 상12; “안 서직에 날적의 일즉 썩디 아 니티 아니하더라(出內齋에 未嘗不束帶하더라).” 『소학언해』 6:112.

64) ‘서’를 한자 ‘醞, 漚’가 아닌 ‘서’로 표기한 것은 <처용가> “마아만 마아만 하녀여”에서 麼兒, 麼兒, 々兒, 麼兒를 한글로 표기한 것임주탁, 「고려 <처용가>의 새로운 분석과 해석」, 『한국문학논총』 40(한국문화학회, 2005), 17쪽], <만전춘별사>에서 ‘鵝灘, 鵝沾, 噉連’을 ‘아련’으로, <정석가>에서 ‘帖裡, 帖裏, 貼裡, 天翼’을 ‘털락’으로 표기[황병익, 「滿殿春別詞 5聯의 語彙 再考」, 『韓國詩歌研究』, 16(韓國詩歌學會, 2004) 162쪽 참조]한 것, <서경별곡>에서 ‘小城京(景)’을 ‘소성경’으로 표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秀蘆荀綠)”(『杜초』 6:51)을 “綠은 푸를씨라”(『월인석보』 8:10), “장안(長安)옛 겨숯 디히는 식오 쏘 **푸락고** 금성(金城) 짜헛 수(酥)는 조하 길 근도다”(『杜초』 3:50)의 용례와 같이 ‘가만하다’와 ‘마둔하다’는 같은 단어의 다른 표기로 이해한다.⁶⁵⁾

- (17) 凡夫는 날로 뿌디 아디 못홀시 닐오디 ㄹ만하며 그속다 ㅎ니라(凡夫日用而不知 故云潛密)(『원각경언해』 上1-2:15)
- (18) 기로몰 드토며 델오몰 드토아 ㄹ만하 하리 날로 들어(爭長競短하어 漸漬日聞하어)(『초간내훈』 3:43)
- (19) 몸과 손바리 마둔하사 편안(便安)히 뫼디 아니 하시며(身體及手足이 靜然安不動하시며)(『법화경언해』 3:99)
- (20) 거지비 날굽 내뫼미 잇느니... ㄹ만하 도적(盜賊) 하거든 내뫼 디니라(婦人有七去하니... 竊盜커든 去니라)(초간 『내훈』 1:87)

이상에서 ‘마둔하(마만하다)’는 ‘미(微)·정(靜)·적(寂)·막(漠)·묵(默)·밀(密)·암(暗)·잠(潛)’ 등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⁶⁶⁾ (17)~(20)의 “잠밀(潛密)·점지(漸漬)하다, 정연(靜然), 절(竊, 몰래, 남몰래)”에서 그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승가리(僧伽梨)쓰리 동하야 겨뫼 사르미게 미즈면 **마둔하 버락미** 더 사르미 누를 썰리니,” “하난아 너 하 사르미 오솔 값간 뫼우면 **마둔하 버락미** 나고”⁶⁷⁾나 <동동> 9월령의 앞뒤 문맥을 함께 고려하면, <동동> 9월령의 서술어 ‘가만하다’는 “드러나지 않게 풍기는 그윽한 국화 향기”를 뜻하는 말로, 술잔(술통)에 든 국화에서 우러나는 ‘미향(微香), 미방(微芳), 유향(幽香), 유방(幽芳)’⁶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요컨대, ‘새서가만하애라’의 ‘새서(新醞, 新漚)’는 “새로 담은 좋은 술, 즉 미주

65) “‘흙’이 방언에 따라 ‘학, 함, 혈, 혁, 흑, 호록, 흑, 흘, 흙’으로 발음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는 초기 훈민정음 문헌에서 사용한 표기에 따라 현실 발음과는 상관없이 표기에만 사용해 왔다.” 김동소, 「한국어 변천사 연구의 문제점: 시대구분 문제와 비음소적 과잉문자 아레아(·) 문제」에 한정하여, 『배달말』, 39(배달말학회, 2006), 52쪽.

66) 李應百은 ‘가만하애라’를 ‘은근하구나’로 잡아도 큰 무리가 없겠다고 하였다. 李應百, 앞의 논문(1978), 69쪽.

67) “僧伽梨角이 動及傍人하면 則有微風이 拂彼人面하리니.” 『楞嚴經諺解』 3:82(大提閣, 1985), 165쪽, “阿難아 如汝一人이 微動服衣하면 有微風이 出하코” 『楞嚴經諺解』 3:85·86, 위의 책, 167쪽.

68) “江蘿生幽渚 微芳不足宣 呂延濟注 婦人自喻本在父母家 居幽閑之室 謙以德微不足以奉君子.” 陸机, 塘上行, 『文選』.

(美酒)”이고, ‘가만하애라’는 “은근하게 풍기는 그윽한 향기(微香)”를 뜻하므로, “구월 구일에 약이라 먹는 황화 고지 안해 드니 새서 가만하애라”는 “약으로 먹는 황국(黃菊)이 안에 들어 새로 거른 맑은 술에 향기가 그윽하구나,” “새로 거른 국화주에서 꽃향기가 은은하게 풍기는구나”이다. 이는 “동쪽 울타리에 몇 떨기 국화/중앙절 기다리지 않고 일찍 피었네./아이 불러 한 가지 꺾으라고 해서./아내에게 새 술을 거르라 하였네./**이로부터 술통 속 그 물건들/맑은 향기로 내 잔을 훈훈케 하리**”나⁶⁹⁾ “누군가 사람 통해 국화주 보내주니./노란 국화 등등 떠 술잔에 **향기 진하네**(何處白衣人送酒 黃花來泛一盞香)”⁷⁰⁾에서와 같이 새로 담은 국화주에서 풍겨 나오는 은은한 국화 향을 감각적으로 묘사한 구절이다.

III. <한림별곡> ‘덩쇼년(鄭少年)’의 의미 재론

<한림별곡> 8연의 “헤고시라 밀오시라 덩쇼년(鄭少年)하”의 ‘덩쇼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어원을 밝힌 자료는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정소년이라는 글자를 보고 정(鄭)을 성(姓)으로 생각하고, 소년을 20대 나이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소년은 유럽에서 여색에 밝은 사나이, 즉 음란한 사나이를 지칭⁷¹⁾하는 말”이라 한 이후, ‘덩쇼년’을 대체로 “바람둥이 남자,”⁷²⁾ 미끈하게 잘 생기고 여자를 잘 다루는 사내인 ‘왈짜패’로 분석한다. 또, “그네를 밀어주는 사람의 성을 굳이 정으로 밝힌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정(鄭)과 위(衛)는 남녀의 풍기가 문란했던 대표적인 나라”이므로 그네를 미는 사람을 ‘정’이라 설정한 것은 문란했던 정나라를 암시하는 중의적 표현이라고 했다. 나아가 “정소년은 단순히 정씨 성을 가진 소년이라는 뜻을 넘어 외설스런 분위기를 조장하는 인물로 보아야 하겠다”는⁷³⁾ 결론을 제시하기도 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림별곡> 8장의 ‘당추자(唐

69) “東籬數叢菊 不待重陽開 呼兒折一朵 命婦簪新醞 從此尊中物 清香熏我杯... 飲中八仙子 骨化爲塵埃 高脚舊酒壚 一去無復廻” 元天錫, 九月五日 與客小酌, 『耘谷行錄』 卷2, 詩.

70) 成渾, 村人送酒栗谷, 『牛溪集』 卷1; 『文叢』 43, 10쪽.

71) 呂增東, 앞의 책(1981), 11~13쪽; 呂增東, 『韓國文學歷史』(螢雪出版社, 1983), 57쪽.

72) 趙규익, 『高麗俗樂歌詞 景幾體歌 鮮初樂章』(한샘, 1993), 139쪽.

73) 金善祺, 앞의 논문(2001), 17쪽.

楸子), 홍(紅)실, 홍(紅)글위'를 성적(性的) 상징으로 보고, “정나라의 문란함에 유래하고, ‘혀고시라 밀오시라,’ ‘내 가는 덕 늬 갈세라’와 결합한 것을 보면, ‘덩쇼년’은 성교 행위, 그 가운데서도 남성들 간의 동성애(男色·鷄姦)를 표현한 것”⁷⁴⁾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은 ‘덩쇼년’에 대한 좀 더 세밀하고 실증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다음 한시가 <한림별곡>의 제8연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는데 단서가 될 만하다.

(1) 중원(中原)의 한식(寒食)날 봄바람 솔솔 불 때
사람과 그네가 반공중에 등실 뗏네.
우리나라 단오절 문득 생각나네,
까르르 웃어대며 모시적삼 휘날렸지.
아롱다롱 그넷줄, 바람이 사뿐 일면
붉은 치마 날아올라 저 하늘로 사라질 듯.
구경꾼 흠어진 후 석양지고 적막하니
외로운 그네만 저녁놀이 매달렸네.
우뚝한 가래나무 바람 받고 서 있는데
붉은 실 그넷줄은 허공에 박차 오르네.
당겨주고 밀어주는 저기 저 소년들
굳고 굳은 사내 마음 여인네 눈길에 흔들리네.⁷⁵⁾

지은이가 중국에 사신으로 가서 청춘남녀들이 그네 뛰는 모습을 보고 고려의 단오 광경을 회상한다. 여인들이 모시적삼과 붉은 치마를 휘날리며 반공중에 떠오르고, 힘차게 그넷줄을 차올리던 소년들은 주위 여인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가슴 설렌다. <한림별곡>의 시어 ‘혀고시라 밀오시라,’ ‘홍(紅)실, 홍(紅)글위’이나 (1)에 나오는 ‘당겨주고 밀어주는(挽去推來),’ ‘붉은 실 그넷줄(紅線鞦韆)’은 별다른 상징적 의미가 없는 추천(鞦韆, 그네뛰기)을 즐기는 일상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74) 成昊慶, 『韓國詩歌의 類型과 樣式 研究』(영남대학교출판부, 1995), 119, 124~128쪽.
75) “中原寒食好東風 人與鞦韆在半空 須記三韓端午日 紵衫輕舉語聲中 綵絲飛颺自生風 直恐紅裙入碧空 人散晚來殊寂寞 依依掛在夕陽中 堂堂楸樹迴臨風 紅線鞦韆欲就空 挽去推來少年在 鐵腸搖蕩眼波中.” 李穡, 鞦韆 『牧隱叢』 卷8; 『文叢』 4, 55쪽, 이병혁(역주), 『연강학술도서 한국고전문학전집19: 목은집』(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5), 136~137쪽 참조.

(2) 정(鄭)나라의 재상 자산(子産)이 병이 들어 장차 임종하려 할 때 유길(游吉)에게, “내가 죽은 뒤, 그대가 나라를 맡게 되면 반드시 엄한 태도로 사람을 다스리도록 하오. 무릇 불은 그 기세가 두려워 피하기 때문에 타 죽는 자가 드물지만, 물은 보기에 만만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빠져죽는 사람이 많은 법이오. 그러니 그대는 반드시 태도를 엄히 하여, 사람들이 앞보다가 물에 빠져죽는 것 같은 형국을 만들지 마시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자산이 죽은 후 유길은 나라를 엄하게 다스리지 않았다. 정쇼년(鄭少年)들은 물려다니며 도둑질을 일삼고, 역새발을 근거로 변란을 일으켰다. 이에 유길이 수레와 기병을 거느리고 하루 밤낮을 싸워 겨우 그들을 토벌하였다. 유길이 탄식하며 “내가 자산의 가르침을 따랐더라면 이처럼 후회할 일은 없었을 텐데”라고 하였다.⁷⁶⁾

(2)는 유길(游吉)이 나라를 엄한 태도로 다스리라는 자산(子産)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다가 사회가 무질서하고 변란이 일어나게 된 사정을 담고 있다. 재상(宰相) 자산은 도시와 농촌 간의 구별을 엄격히 하고, 신분의 구별을 분명히 하였으며, 귀천에 따라 의복도 차등 있게 하였다. 그는 농지 개혁과 수리 사업, 세제 개혁을 추진하였고, 토지구획정리를 단행하여 토지 생산력을 높이고, 구부제(丘賦制)를 실시하여 군사비를 조달하고, 산림소택(山林沼澤)을 장악하고 목장을 설치하여 세수(稅收)를 확보함으로써 국가의 재원을 확보했다. 자산은 강제적 구속력과 집행력을 가진 법률로, 중국의 최초의 성문법인 형정(刑鼎)을 제정·공포하기도 했다.⁷⁷⁾

(3) 자산(子産)은 정나라의 대부이다. 정나라 소군(昭君)이 총애하던 서지(徐贄)를 재상으로 삼았으나 나라가 어지럽고 아래 윗사람이 서로 친하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이 화목하지 못했다. 대궁자기(大宮子期)가 이 사실을 소군에게 말하니 이에 자산을 재상으로 삼았다. 자산이 재상이 된지 1년이 지나자, **더 벽머리 애(豎子)들의 경박한 희롱이 사라지고(豎子不戲狎)**, 노인들이 무거운 짐을 나르지 않고, 어린아이들이 밭을 가는 일도 없었다. 2년이 지나자 시장

76) “子产相郑 病将死 谓游吉曰 我死後 子必用郑 必以严莅人 夫火形严 故人鲜灼 水形懦 人多溺 子必严子之形 无令溺子之懦 故子产死 游吉不肯严形 郑少年相率为盗 处於壑泽 将遂以为郑祸 游吉率车骑与战 一日一夜 仅能克之 游吉喟然又曰 吾蚤行夫子之教 必不悔至于此矣.” 邓振宇(編), 『內儒說上』 說 2, 中華千年古書: 『韓非子』上』(紫禁城出版社, 1998), 64쪽.
77) 李春植, 『中國 古代史의 展開』(신서원, 1986), 118~119쪽.

에 부당한 거래가 없었고, 3년이 되자 밤에 문을 잠그는 일이 없어졌고,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줌는 사람이 없었다. 4년이 지나자 밭갈이하던 농기구를 그냥 놓고 다녔고, 5년이 지나자 병사들이 군령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고, 상복 입는 기간을 명하지 않아도 잘 지켜졌다. 정나라를 다스린 지 26년 만에 자신이 죽으니, 장정들은 곡을 하고 노인들도 아이처럼 울면서, “자산이 우리를 버리고 죽었으니 이제 누굴 믿고 산단 말인가?”라고 했다.⁷⁸⁾

서지(徐贄)가 재상일 때는 나라가 어지럽고 상하가 서로 친하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도 화복하지 못했지만, 자산(子產)이 재상이 된 후에는 엄격한 규율을 적용해 젊은 아이들의 방탕한 희롱도 사라지고, 도덕과 질서가 바로잡혔다. 위의 (2)에 보인 자산의 유훈은 “법을 엄격히 집행하여 양민을 보호하고, 간악한 행위를 반드시 응징하여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으라”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자산이 죽고 유길(游吉)이 정권을 잡으면서 다시 사회 질서가 문란해졌다. 그 문란상을 지적할 때, “몰려다니며 도둑질을 일삼고 역새발을 근거로 변란을 일으킨” ‘정소년(鄭少年)’이 등장한다. 여기서 정소년은 학문이나 수양 등 자신을 가꾸는데 힘쓰지 않고 무리지어 다니며 헤이하고 방탕하게 지내던 정나라의 젊은이들을 말한다. 정소년은 (3)의 “희롱을 일삼는 방종한 더벅머리들, 즉 수자(豎子)”와 같은 뜻으로 보인다. 나라의 법이 어지럽고 무질서할 때, 이들이 경박하게 희롱, 곧 희압(戲狎)을 일삼는다 했는데, 이 ‘희압’은 흔히 “첩이나 간신배들과 어울려 경박하게 놀다,” “무리지어 장난하고, 희롱하며 놀다”⁷⁹⁾라는 뜻으로 쓰인다.

(4) 시러곰 차 푸는 집과 술 푸는 집의 드디 아니 하며 저제와 밑을히말와 鄭
영과 衛위사 소리를 일즉 흥번 귀에디내디 아니 하며 正정티 아니 흥 글월와
禮례 아닌 빗츨 일즉 한번 눈에 브티디 아니하더라.⁸⁰⁾

78) “子产者 郑之列大夫也 郑昭君之时 以所爱徐摯为相 国乱 上下不亲 父子不和 大宫子期言之君 以子产为相 为相一年 豎子不戏狎 斑白不提挈 僮子不犁畔 二年 市不豫贾 三年 门不夜关 道不拾遗 四年 田器不归 五年 土无尺籍 丧期不令而治 治郑二十六年而死 丁壮号哭 老人儿啼曰 子产去我死乎 民将安归。” 新校本『史記』卷119, 循吏列傳, 第59。
79) “常侍遂無員限 今以王元景等爲常侍 定限八員 加金紫光祿大夫 武帝或時袒露 與近臣戲狎 每見听 卽正冠而斂容焉” 新校本『北齊書』卷31補, 列傳23, 王昕。
80) “無得入茶肆酒肆喧嘩 市井里巷之語와 鄭衛之音을 未嘗一經於耳하며 不正之書와 非禮之色을 未嘗

중국어 우리역사에서 공히 정나라의 음악을 ‘정위지음(鄭衛之音), 정성(鄭聲), 정음(鄭音)’이라 하여 음란한 난세(망국)의 음악으로 경계했다. 『소학』의 가르침을 담은 (4)에서도 정위(鄭衛)의 음악을 시장에 떠도는 근거 없는 소문과 같이 여기어,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어린 선비들의 금기로 삼았다. <한림별곡> 8연의 ‘영소년’은 앞의 ‘정성’이나 ‘정음’처럼 굳어진 말로,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데 엄격하지 않고, 남녀 간의 유희를 거침없이 즐기며, 여자들이 탄 그네를 밀며 방탕하게 노는 선비⁸¹⁾들을 “헤이하고 방벽(放僻)하며, 법도 없이 무질서한 정나라 소년들의 방종에 건준 말”이다.

퇴계는 <한림별곡> 같은 종류를 “궁호방탕(矜豪放蕩)하고 설만희압(褻慢戲狎)하니 군자가 숭상할 바가 못 된다”⁸²⁾고 평했다. ‘궁호방탕’은 “거만하고 불손하며 거리낌 없이 멋대로 구는 것”⁸³⁾이고, ‘설만희압’은 “경박하여 남을 업신여기고 희롱이나 농지거리를 일삼는 것”이다.⁸⁴⁾ 그네를 밀고 당기며 방종하게 놀고, ‘내 가 논디 놉 갈레라’라며 자신이 마음에 둔 여인에게 다른 사람이 먼저 접근할까 걱정하는 경박한 태도는 ‘희압’의 한 단면이다. 한림제유(翰林諸儒)가 자신들을 정소년에 비유하고, 스스로의 방종하고 향락적인 놀음까지 시적 대상으로 삼은 것은 시부(詩賦)나 서적 이외에 ‘명주(名酒)· 화훼(花卉)· 음악(音樂)· 누각(樓閣)· 추천(靴鞮)’ 등 선비들의 다양한 관심과 취미, 경험 세계를 의기양양하고 거리낌 없이 드러내려는 의도에서 비롯했⁸⁵⁾ 것이다. 그러나 <한림별곡>은 거침없는 유희와

一按於目하더라.” 『小學彙解』卷6, 外篇 善行:2~3.

81) “삭옥섬섬(削玉纖纖) 상수(雙手)스길헤 삭옥섬섬(削玉纖纖) 상수(雙手)스길헤 위 휴수동유(携手同遊)스 경(景)괴엇더하니잇고.” 『樂章歌詞』上.
82) “如翰林別曲之類 出於文人之口 而矜豪放蕩 兼以褻慢戲狎 尤非君子所宜尙.” 李滉, 陶山十二曲跋, 『退溪集』卷43; 『文叢』30, 468쪽.
83) “矜豪 倨傲豪縱 風位任轉高 矜豪日甚 縱酒耽樂 不恤政事.” 新校本『晉書』卷81, 列傳51, 劉胤; “祇性矜豪 樂在外放恣 不願內遷 甚不得志.” 新校本『宋書』卷47, 列傳7, 檀祿; “放蕩 放縱 不受約束 指意放蕩 頗復詭譎 辭數萬言 終不見用.” 新校本『漢書』卷65, 列傳35, 東方朔.
84) “子繡在渤海 定遠過之 對妻及諸女謀集 言戲微有褻慢 子繡大怒 鳴鼓集 衆將攻之.” 新校本『北齊書』卷21, 列傳13, 封隆之 封子繪.
85) <한림별곡> 등 경기체가의 미적 특징을 대체로 “격정적 發興과 호기로운 자궁의 과시, 넘쳐흐르는 향락”[김진숙, 『16세기 초반 詩歌史의 흐름』, 『韓國詩歌研究』, 10(韓國詩歌學會, 2001), 165쪽], “연희 현장의 상승적 감흥”[최제남, 『경기체가 장르론의 현실적 과제』, 『韓國詩歌研究』2(韓國詩歌學會, 1997), 19쪽]으로 잡는다.

방종과 오만과 과시를 담았고, “새로 급제한 예문관원(藝文館員)을 축하하는 주연에서, 모두 일어나 상관장(上官長)을 위해 주례(酒禮)를 행하고,86) 기생과 어울려 위아래가 셈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취해서, 개구리 울음소리처럼 부르는”87) 연행 상황을 연출했기에, 즐기되 정도를 넘지 않을 것을 강조하던 퇴계·금계 등의 유학자들은 바른 성정에서 나오지 않는 음란함이나 호방 질탕(豪放跌宕)함을 경계하면서88) 한림별곡 같은 작품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보였던 것이다.

IV. 나오기

이상에서 <동동(動動)> 9월령의 한 구절 ‘새서가만하애라’와 <한림별곡(翰林別曲)>의 ‘덩쇼년(鄭少年)’에 대한 풀이를 시도했다. ‘새서’에 대해서는 ‘새서(歲序, 세월의 차례),’ ‘모옥(茅屋, 띠집),’ ‘새어 나와” 등 여러 의견이 있지만 어의와 구절에 어울릴 설명을 찾지 못했고, ‘덩쇼년’은 “외설스런 남자, 바람둥이 남자”라는 해석을 근거로, “미소년 혹은 왈짜괘”로 확대 해석했지만 실증이 부족했다.

본고의 논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새서’는 새로 거른 좋은 술을 뜻한다. ‘서(醞·漚)’는 ‘리(醜)’와 대칭되어 ‘좋은 술’을 뜻한다. ‘새 거(居, 新居),’ ‘새 윤(尹, 新尹),’ ‘새 순(荀, 新荀),’ ‘새 순(筍, 新筍)’ 등이 비슷한 조어에 해당한다. ‘서안(書案), 석죽화(石竹花), 서열(庶孽)’ 등에서 ‘사’를 ‘서’로 표기했다. ‘가만하다’는 은근히 배어나오는 미향(微香)이다. “새서가만하애라”의 ‘새서’가 신서(新醞, 新漚), ‘가만하다’는 “은근하게 배어나오는, 그윽한 향기,” 즉 미방(微芳), 유향(幽

86) “正德庚辰 予奉使 由嶺南 歷湖南 全州府尹鄭公順朋 候予於快心亭上…(中略)…上下無筭 既醉 共起 爲上官長行酒禮 齊唱翰林別曲 列妓相和 響徹寥廓 回視白月已中天矣 此真曠世奇會 不可以無傳 遂作一絕 屬諸僚丈繼和 以爲快心亭翰林會題名記 德水李某書.” 李荇, 『容齋集』 卷7; 『文叢』 20, 480~481쪽.
87) “新及第入三館者 先生侵勞因辱之 一以示尊卑之序 一以折驕慢之氣 藝文館尤甚 新來初拜職設宴…(中略)…人挾一妓 上官長則擁雙妓 名曰左右補處 自下而上 各以次行酒 以次起舞 獨舞則罰以酒 至曉 上官長乃起於酒 衆人皆拍手搖舞 唱翰林別曲 乃於清歌蟬咽之間 雜以蛙沸之聲 天明乃散.” 성현, 『용재총화(4)』; 『국역 대동야승(1)』(민족문화추진회, 1973), 109쪽.
88) 김진숙, 「주세붕의 『죽계지』 편찬과 시가관: 황준량과의 시가편입 논쟁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11(민족문학사연구소, 1997), 124~125쪽.

香), 유방(幽芳)이므로 <동동> 9월령은 “약으로 먹는 국화가 들어있으니 새로 거른 술에 (국화) 향기 그윽하구나!”의 뜻이다. 국화는 가슴 속이 답답하고 괴로운 ‘번열(煩熱)’을 없애주고, 속을 편안하게 하고, 맥을 순조롭게 하며, 팔다리 혈액순환을 도와준다고 여기어 국화주 안에 든 국화까지 씹어 먹었다. <동동>의 이 구절은 “누군가 사람 통해 국화주 보내주니, 노란 국화 동동 떠 술잔에 향기 진하네”(咸渾)라는 구절과 분위기가 흡사하다.

<한림별곡>의 ‘덩쇼년(鄭少年)’은 ‘정성(鄭聲)’이나 ‘정음(鄭音)’처럼 굳어진 말로, 남녀 간의 유희를 거침없이 즐기고, 여자들이 탄 그네를 밀며 방탕하게 노는 선비들을 “헤이하고 방벽(放僻)하게, 법도 없이 무질서한 정나라 소년들”에 견준 말이다. ‘정소년’에 관한 문헌적 기록은 『한비자』의 자산(子産)과 유길(游吉) 이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덩쇼년’은 『사기』의 ‘방중한 수자(豎子)’와 같고, 그들의 거침없는 유희는 수자들의 희압(戲狎), 즉 경박한 희롱과 일맥상통한다.

참고문헌

『高麗史』; 『北齊書』; 『四庫全書』; 『史記』; 『梁書』; 『漢書』; 『鄉藥集成方』; 『陽村集』; 『鶴峯續集』; 『용재총화』; 『牛溪集』; 『大觀齋亂稿』; 『耘谷行錄』; 『東國李相國集』; 『牧隱藁』; 『本草綱目』; 『樸翁稗說』; 『遁村雜詠』; 『容齋集』; 『退溪集』; 『荊楚歲時記譯註』; 『韓非子』.

김동소, 「한국어 변천사 연구의 문제점: 시대구분 문제와 비음소적 과잉문자 아래(··) 문제에 한 정하여」, 『배달달』 39, 2006, 31~71쪽.

金香祺, 「翰林別曲의 解釋의 考察」, 『韓國言語文學』 47, 2001, 1~22쪽.

金完鎭, 「高麗歌謠의 語義 分析」, 『高麗時代의 가요문학』, 서울: 새문사, 1982, II-2~III-12쪽

김완진, 『향가와 고려가요』,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金台俊, 『朝鮮歌謠集成 古歌篇 第1輯』, 서울: 朝鮮語文學會, 1934.

金亨奎, 『古歌謠註釋』, 서울: 一潮閣, 1965.

김진숙, 「주세붕의 『죽계지』 편찬과 시가관: 황준량과의 시가편입 논쟁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11, 1997, 107~138쪽.

南廣祐, 「高麗歌謠 註釋上의 問題點에 關하여」, 『高麗時代의 言語와 文學』, 서울: 螢雪出版社, 1975,

49~91쪽.

朴炳采, 『高麗歌謠 語釋研究』. 서울: 宣明文化社, 1968.

서재극, 「麗謠 註釋의 問題點 分析: 動動, 靑山別曲을 중심으로」. 『語文學』 19, 1968, 1~10쪽.

徐在克, 「麗謠 解釋에 따른 몇 가지 問題」. 『國語國文學』 64, 1974, 166~174쪽.

서재극, 「노래 動動에서 본 高麗語」. 『高麗時代의 言語와 文學』. 서울: 螢雪出版社, 1975, 93~106쪽.

成昊慶, 『韓國詩歌의 類型과 樣式 研究』. 경산: 영남대학교출판부, 1995.

梁柱東, 『麗謠箋注』. 서울: 乙酉文化社, 1947.

呂增東, 「고려노래 연구에 있어서 잘못 들어선 점에 대하여」. 『白江徐首生博士還甲紀念論叢 韓國詩歌研究』. 서울: 螢雪出版社, 1981, 101~103쪽.

呂增東, 『韓國文學歷史』. 서울: 螢雪出版社, 1983.

유경환, 「동동의 원형적 상징성」. 『새국어교육』 65, 2003, 313~349쪽.

유동성, 「고려가요 해독을 위한 이론적 전제」. 『語文教育論集』 17, 湯民 柳鐸一博士 停年退任 紀念號, 釜山大學校 國語教育科, 2000, 1~15쪽.

이성주, 『증보 고려시대의 가요』. 서울: 민속원, 1998.

李應百, 「動動 九月令 語釋考」. 『국어국문학』 77, 1978, 61~67쪽.

李春植, 『中國 古代史의 展開』. 서울: 신서원, 1986.

李鉉洙, 「高麗歌謠 ‘動動’歌 研究: 民俗學的 考察을 중심으로」. 『東岳語文論集』 8, 東岳語文學會, 1972, 133~172쪽.

林基中, 「高麗歌謠 動動放」. 국어국문학회(편), 『高麗歌謠研究』. 서울: 백문사, 1979, 365~417쪽.

任東權, 「<動動>의 해석」. 『高麗時代의 가요문학』. 서울: 새문社, 1982, I-42~I-57쪽.

임주탁, 「고려 <처용가>의 새로운 분석과 해석」. 『한국문학논총』 40, 2005, 5~31쪽.

全奎泰, 『韓國詩歌研究』. 서울: 고려원, 1986.

조규익, 『高麗俗樂歌詞 景幾體歌 鮮初樂章』. 서울: 한샘, 1993.

池憲英, 『鄉歌麗謠新釋』. 서울: 正音社, 1947.

최미정, 『고려속요의 전승연구』.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99.

崔元基, 「高麗歌詞 動動 ‘새서가만하애라’에 對한 語釋考」. 『研究論文集』 21, 釜山工業專門大學, 1980, 13~28쪽.

최재남, 「경기체가 장르론의 현실적 과제」. 『韓國詩歌研究(2)』. 서울: 韓國詩歌學會, 1997, 5~28쪽.

최철·박재민, 『석주 고려가요』. 서울: 이화, 2003.

황병익, 「滿殿春別詞 5聯의 語彙 再考」. 『韓國詩歌研究』 16, 2004, 153~187쪽.

羅竹風(編), 『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2001.

張志立·汪玠玲, 『中國民俗文化大觀』(上). 吉林人民出版社, 1999.

국문 요약

<동동(動動)> 9월령의 '새서'는 "세서(歲序, 세월의 차례)," "모옥(茅屋, 띠집)," "새어 나와"로, <한림별곡(翰林別曲)>의 '덩소년(鄭少年)'은 "정(鄭)씨 소년," "외설스런 남자, 바람둥이 남자, 동성애자," "미소년, 혹은 왈짜패" 등으로 풀이해 왔다. 이에 대한 본고의 재론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동동>의 '새서'는 "새로 거른 좋은 술(新釀 淸醞(美酒))"을 뜻한다. '서(醞·澗)'는 '리(醞)'와 대칭되어 '좋은 술'의 대명사로 쓰였고, '새 거(居, 新居),' '새 윤(尹, 新尹), 새 순(荀, 新荀), 새 순(筍, 新筍)' 등의 비슷한 조어가 있으며, '서'를 '서'로 표기한 '서안(書案), 석독화(石竹花), 셔열(庶孽)' 등의 예가 많다. 이에 <동동> "새서가만하애라"의 '새서'는 신서(新醞, 新澗)를 뜻하고, '가만하다'는 '미향(微香), 유향(幽香), 유방(幽芳),' 즉 그다지 드러나지 않게 풍겨 나오는 은근한 향기란 의미를 담았다. <동동> 9월령은 "약으로 먹는 국화가 안에 들어, 새로 거른 술의 향기가 그윽하구나!"로 풀이할 수 있다.

<한림별곡>의 '덩소년'은 '정성(鄭聲)'이나 '정음(鄭音)'처럼 굳어진 말로, 내면을 가꾸는데 힘쓰지 않고, 남녀 간의 유희를 거침없이 즐기며, 여자들이 탄 그네를 밀며 방탕하게 노는 선비들을 헤이하고 방중하게 나라를 어지럽히던 정(鄭)나라의 소년들에 견준 말이다.

- 투고일 : 2007. 10. 15.
- 심사완료일 : 2007. 11. 28.
- 주제어(keyword) : 동동(Dongdong), 새서(saesyeo), 세월의 차례(the order of time and tide), 모옥(茅屋, a straw roofed house), 새로 거른 술(newly filtered wine), 은은한 향기(subtle perfume), 한림별곡(Hallim-byeolgok), 덩소년(Jeong-sonyeon), 바람둥이(a flirt), 방탕아(libertine)